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2권 제2호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Vol. 22, No. 2, 1~11, December 2009

여중생의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김 미 정[1] · 김 정 순[2] · 강 인 순[2] · 하 주 영[2*]

[1]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부산대학교 간호대학

Aggression of Middle School Girls according to Types of School and Gender Role Identity

Mi Jeong Kim[1], Jung Soon Kim[2], In Soon Kang[2], Ju Young Ha[2*]

[1]*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ggression of middle school girls with type of school and gender role identity.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26 second-year middle school girls (265 girls in the coeducational middle schools, 261 girls in the girls' middle schools) in Busa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14th to 29th of December, 2008 using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and Aggression Inventory.

Results : 1.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role identity types according school types (x^2=8.813, p=.032). 2. The whole aggression grade point average was 1.58±.40 points(highest score: 4), and reactive-overt aggression was highest in the aggression types(2.06±.63). 3.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ggression of middle school girls according to type of school (t=.188, p=.664). 4.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grees of aggression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types. The degrees of aggression in masculinity type was highest 〔grade point average was 1.70±.44 points(highest score: 4)〕. 5. There was not interactive effect in aggression between type of school and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Conclusion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providing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or activities for middle school girls to relieve aggression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types.

Keywords : aggression, middle school girl, gender role identity

(2009년 8월 17일 접수, 2009년 11월 20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 Ju Young Ha,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626-770 Korea
Tel : 82-51-510-8332 Fax : 82-51-510-8308 e-mail : jyha1028@pusan.ac.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외부의 자극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강한 시기이다(정경택, 2003). 다양한 연구들에서 공격성은 생물학적 요인, 기질 등의 개인적 변인과 가정, 학교, 사회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개인적 변인 중 성역할 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올바른 자아정체성 형성의 결정적 요소로, 정체성 혼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외현적 행동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게 한다(김미향 등, 2000). 환경적 변인 중 학교는 청소년에게 있어 '제 2의 가정'으로(윤혜정, 1993) 교사나 또래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Bandura(1973)는 사회학습이론에서 개인의 공격성은 관찰, 모방을 통해 학습될 수 있으며 강화에 의해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사나 또래의 긍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도 함께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교환경은 청소년 공격성의 강화요인이기도 하다(김미경, 2000).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 죄책감의 약화, 여학생 폭력의 증가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폭력은 1999년 가해율 2.2%에서 2006년 14.2%로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학생의 공격성 급증은 전통적으로 약하고 부드럽다고 인식되어온 여성상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또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性)의 차이만으로 단순히 공격성을 예측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장혜정, 2008). 많은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의 공격성 수준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오산여울, 2008; 장혜정, 2008; 정경택, 2003),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집단적으로 공격하여 책임감이 분산될 때, 책임전가를 할 대상이 있을 때에는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공격적이다(Frodi, Macaulay, & Thome, 1977). 특히, 관계적 공격성은 전형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주로 나타내는 남아들과는 달리 여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여아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Crick, 1996), 이것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높은 공격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제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공격성은 남자에게만 나타난다고 단정 짓고, 공격의 표현방식이 명백하고 상대적으로 남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외현적 유형의 공격성과(Crick & Werner, 1998) 남학생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대책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여학생들은 공격성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여학생의 공격성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청소년의 공격성 예방과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미흡하였다(박민정과 최보가, 2004).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청소년기 공격성의 유발요인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우울과 불안(손현숙, 2009),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갈등 등 가정환경 요인(곽혜경, 2008; 강현숙, 2008; 이진솔, 2007)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인적 요인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성역할 정체감이나 환경적 요인의 하나인 학교 형태와 관련된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의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중생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공격성 정도와 유형을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공격성 정도와 유형을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정도와 유형을 파악한다.
6)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정도와 유형을 분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부산광역시의 5개 교육관할구역에서 각 관할구역별로 남녀공학 중학교와 비공학 여자중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관할구역 규모가 큰 2개 구역(동래, 남부)에서는 2개교씩, 나머지 3개 구역(서부, 북부, 해운대)에서는 1개교씩 선정하고, 각 학교별로 2학년 여학생 1개 학급을 임의 추출하여 14개 학교, 14개 학급의 남녀공학 여중생 265명, 비공학 여중생 262명, 총 5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자료수집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사전에 선정된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이루어졌다. 선정된 학교의 보건교사는 연구대상 여중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쓰이므로 무기명, 비밀보장 및 처벌 없음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건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한 뒤 보건교사가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비공학 여중생 자료 1부를 제외한 52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은 정진경(1990)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지(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홀수 문항번호의 남성성 20문항, 짝수 문항번호의 여성성 2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척도를 사용하며, Spence et al.(1974)이 제시한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에 의해 양성형, 남성형, 여성형, 미분화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정진경(1990)의 연구에서는 남성성 .91, 여성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성성 .88, 여성성 .88이었다.

2) 공격성

공격성은 박민정(2003)의 공격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격성의 기능적인 면과 표현방식적인 면으로 구분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주도적 공격성과 대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는데,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의미하고 검사지 문항에서는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로 표현되는 반면, 대응적 공격성은 외부나 타인으로부터 지각된 위협의 대상에 대한 방어와 보복 차원에서의 공격을 목적으로 하며 검사지 문항에서는 주로 '누군가가 ~하면'으로 표현된다. 표현방식적인 측면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는데, 외현적 공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행동을 의미하고 검사지 문항에서는 주로 '때린다', '위협한다', '욕을 한다', '헐뜯는다', '기분을 상하게 한다' 등으로 표현되는 반면,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의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기 위해 또래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특정 아동을 집단에서 소외시키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검사지 문항에서는 주로 '~하지 말라고 한다', '누군가를 제외시킨다'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공격성의 기능적인 측면과 표현방식적인 측면의 하위유형을 서로 통합하여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주도적-외현적(proactive-overt)공격성, 대응적-외현적(reactive-overt)공격성, 주도적-관계적(proactive-relational) 공격성, 대응적-관계적(reactive-relational) 공격성으로 분류한다. 각 영역별로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박민정(2003)의 연구에서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88,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88,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87,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82,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82,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76,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70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중앙치,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x^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공격성 정도와 유형은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평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공격성 정도와 유형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정도와 유형은 one-way ANOVA와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정도와 유형은 two-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연구대상자의 남성성은 최대 평점 7점에 평균 평점 4.16±.78점, 중앙치 4.05점이었고, 여성성은 평균 평점 4.24±.75점, 중앙치 4.20점이었다. 중앙치 분리법에 의한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형이 3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분화형 27.9%, 남성형 19.8%, 여성형 18.6%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확인한 결과, 남녀공학의 경우 양성형이 34.0%로 가장 많았고, 미분화형 27.6%, 여성형 22.6%, 남성형 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중학의 경우 양성형이 33.3%로 가장 많았고, 미분화형 28.4%, 남성형 23.8%, 여성형 14.6%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8.813, p=.032) 〈Table 1〉.

3. 대상자의 공격성

연구대상자의 공격성은 최대 평점 4점에서 평균 평점 1.58±.40점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유형별로는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이 2.06±.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1.69±.48점,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1.30±.42점,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1.28±.3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4.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공격성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공격성 정도와 유형을 살펴본 결과, 남녀공학의 경우 공격성 정도는 최대 평점 4점에서 평균 평점 1.59±.39점으로 나타났고, 공격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이

〈Table 1〉 Distribution of Gender Role Identity Types according to School Types

(N=526)

Division	Androgyny n(%)	Masculinity n(%)	Femininity n(%)	Undifferented n(%)	x^2	p
Coeducational middle schools (n=265)	90(34.0)	42(15.8)	60(22.6)	73(27.6)	8.813	.032*
Girls' middle schools (n=261)	87(33.3)	62(23.8)	38(14.6)	74(28.4)		

〈Table 2〉 Degrees of Aggression in Subjects (N=526)

Characteristics	Division	Item number	M±SD	Possible range	Observed range	M±SD (grade point average)
Grade		24	37.94±9.66	24~96	24~87	1.58±.40
Type	Proactive-overt	6	7.77±2.54	6~24	6~24	1.30±.42
	Reactive-overt	6	12.38±3.77	6~24	6~24	2.06±.63
	Proactive-relational	6	7.66±2.28	6~24	6~21	1.28±.38
	Reactive-relational	6	10.13±2.86	6~24	6~22	1.69±.48

〈Table 3〉 Degrees of Aggression according to School Types (N=526)

Division	Coeducational middle school (n=265)	Girls' middle school (n=261)	t	p
Proactive-overt aggression	1.30±.42	1.29±.43	.169	.681
Reactive-overt aggression	2.05±.58	2.08±.68	.301	.582
Proactive-relational aggression	1.31±.40	1.25±.35	3.345	.068
Reactive-relational aggression	1.70±.46	1.68±.49	.140	.709
Total aggression	1.59±.39	1.57±.42	.188	.664

2.05±.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1.70±.46점,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1.31±.40점,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1.30±.4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중학의 경우 공격성 정도는 1.57±.42점으로 나타났고, 공격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이 2.08±.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1.68±.49점,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1.29±.43점,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1.25±.3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8, p=.664)〈Table 3〉.

5.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전체 공격성은 남성형이 최대 평점 4점에서 평균 평점 1.70±.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양성형 1.62±.40점, 미분화형 1.51±.40점, 여성형 1.48±.32점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46, p=.000).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양성형-여성형, 남성형-여성형, 남성형-미분화형에서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도적-외현적 공격성은 남성형이 최대 평점 4점에서 평균 평점 1.41±.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양성형 1.33±.41점, 미분화형 1.25±.38점, 여성형 1.18±.30점 순으로 공격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30, p=.000).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양성형-여성형, 남성형-여성형, 남성형-미분화형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은 남성형이 최대 평점 4점에서 평균 평점 2.29±.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양성형 2.15±.67점, 미분화형 1.92±.57점, 여성형 1.89±.52점 순으로 공격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41, p=.000).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양성형-여성형, 양성형-미분화형, 남성형-여성형, 남성형-미분화형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양성형이 최대 평점 4점에서 평균 평점 1.32±.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남성형 1.30±.44점, 미분화형 1.26±.39점, 여성형 1.20±.29점 순으로 공격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은 남성형이 최대 평점 4점에서 평균 평점 1.80±.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양성형 1.70±.46점, 여성형 1.65±.42점, 미분화형 1.62±.50점 순으로 공격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47, p=.016).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남성형-미분화형에서 차이를 보였다〈Table 4〉.

6. 대상자의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을 살펴본 결과,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효과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전체 공격성(F=7.226, p=.000), 주도적-외현적 공격성(F=5.777, p=.001), 대응적-외현적 공격성(F=11.551, p=.000), 대응적-관계적 공격성(F=3.032, p=.02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Ⅳ. 고 찰

여중생을 대상으로 남녀공학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형이 가장 많았고, 미분화형, 남성형, 여성형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희(1990)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된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시기가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미분화형이 축소되고 남성은 남성성, 여성은 여성성 정체감의 비율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최임숙(200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미분화형 비율이 높으나 대학생의 경우 양성형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특히 연령의 증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발달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미분화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양성형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남성성이나 여성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성별의 구분없이 자신이 선호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에서 허용하고 인정하는 분

〈Table 4〉 Degrees of Aggression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Types

(N=526)

Division		Proactive-overt aggression			Reactive-overt aggression			Proactive-relational aggression			Reactive-relational aggression			Total aggression		
		M±SD	F (p)	Scheffé	M±SD	F (p)	Scheffé	M±SD	F (p)	Scheffé	M±SD	F (p)	Scheffé	M±SD	F (p)	Scheffé
Gender role identity	Androgyny (a)	1.33±.41	6.30 (.000) ***	a>c* b>c,d*	2.15±.67	11.41 (.000) ***	a>c,d* b>c,d***	1.32±.38	1.98 (.117)		1.70±.46	3.47 (.016) *	b>d*	1.62±.40	7.46 (.000) ***	a>c* b>c,d*
	Masculinity (b)	1.41±.55			2.29±.65			1.30±.44			1.80±.50			1.70±.44		
	Femininity (c)	1.18±.30			1.89±.52			1.20±.29			1.65±.42			1.48±.32		
	Undifferented (d)	1.25±.38			1.92±.57			1.26±.39			1.62±.50			1.51±.40		

* p<.05, *** p<.001

〈Table 5〉 Degrees of Aggression according to School Types and Gender Role Identity Types

(N=526)

Division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p
Proactive -overt aggression	Type of School	.096	1	.096	.551	.458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3.033	3	1.011	5.777	.001**
	Type of School *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114	3	.038	.217	.885
	Error	90.647	518	.175		
Reactive -overt aggression	Type of School	.001	1	.001	.003	.956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12.994	3	4.331	11.551	.000***
	Type of School *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126	3	.042	.112	.953
	Error	194.246	518	.375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Type of School	.428	1	.428	2.992	.084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761	3	.254	1.771	.152
	Type of School *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250	3	.083	.582	.627
	Error	74.145	518	.143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Type of School	.132	1	.132	.587	.444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2.035	3	.678	3.023	.029*
	Type of School *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644	3	.215	.956	.413
	Error	116.250	518	.224		
Total aggression	Type of School	.105	1	.105	.665	.415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3.414	3	1.138	7.226	.000***
	Type of School *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051	3	.017	.107	.956
	Error	81.566	518	.157		

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중학생의 경우 미분화형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성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청년기 성역할 발달 목표가 양성성 정체감 확립이라고 할 때, 현대 청소년은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숙 및 발달 속도 또한 가속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Bem(1974)은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은 한 개인이 남성적 및 여성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를 통합하여 당면한 상황에 따라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높고 현대사회에서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이라 하였다. 특히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양성성을 역설하고, 그러한 사람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적 융통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양성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양성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고, 융통성있고, 더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양성성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과 역 상관을 보이며, 양성적인 사람

들은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준 및 창의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미분화형인 경우 적응정도가 가장 낮다(최임숙, 2004). 미분화형인 경우 아직 자아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기에 사회,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과 자신에게 적절한 성역할 사이에서 결정적인 내면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업이나 진로, 교우관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여중생의 적응력을 높이고 심리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분화형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여중생을 대상으로 양성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생물학적 성에 고착되지 않고 양성평등 및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위주로 한 성역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 학교, 사회는 자기개발과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살펴본 결과, 남녀공학에서는 양성형, 미분화형, 여성형, 남성형 순으로 여자중학교에서는 양성형, 미분화형, 남성형, 여성형 순으로 나타나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남(2002)의 연구에서 남녀공학과 비공학 모두 양성형, 미분화형, 남성형, 여성형 순으로 나타난 결과나 여중생과 남중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영희(2007)의 연구에서 남녀공학 여중생은 미분화형, 양성형, 남성형, 여성형 순으로, 비공학 여중생은 미분화형, 양성형, 여성형, 남성형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김미남(2002)과 이영희(2007)의 연구에서는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임숙(2004)의 연구에서 여자 중·고등학생 모두 남성형 비율이 매우 낮은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녀공학보다 여자중학교에서 남성형이 여성형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남녀공학에서는 남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성과 여성성 개념이 명확해지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을 빨리 일치시키게 되나 여학생만 있는 여자중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부재로 인해 일부 남성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오히려 남성형 성역할 정체감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정도는 평균 평점 1.58±.40점(최대 평점 4점)으로 임옥이(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남중생의 공격성 2.55±.32점(최대 평점 4점)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장혜정(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남중생의 공격성 1.57±.32점(최대 평점 4점)과는 비슷하다. 공격성 유형별로는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장혜정(2008)의 연구에서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이 가장 높고,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과거 여학생들은 수다와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Kempes et al., 2005)는 연구결과와 달리 최근에는 여학생도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등 공격양상이 변화됨을 시사하고 있다. 여학생의 공격성향이 과거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사건·사고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중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공격성에 있어서는 남녀공학 대상자가 여자중학교 대상자보다 주도적-외현적 공격성과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더 높았고 여자중학교 대상자는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남녀공학이라는 학교 특성은 여중생의 공격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외 학교생활이나 성적, 친구, 가족, 교사와의 관계 등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에 있어서 남성형은 주도적-외현적 공격성과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및 전체 공격성에서 가장 높았고, 양성형은 주도적-관

계적 공격성에서 가장 높았다. 임옥이(2003)는 남성형은 신체적 공격성에서, 여성형은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에서, 양성형은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형은 자기주도적이거나 외부 타인에 대한 보복과 방어 차원에 상관없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과 보복과 방어를 위해 또래 간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이 높아 신체적이면서 직접적, 간접적 공격성이 모두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성형은 자기주도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형태의 공격성이 높아 남성형만큼 신체적 공격성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간접적 공격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정(2008)의 연구에서 남성형과 공격성은 정적 상관을, 여성형과 공격성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 여성형이나 미분화형에 비해 남성형의 공격성이 가장 높으며 일부 남성성을 갖고 있는 양성형의 경우도 여성형보다 높은 공격성이 있으므로 유사한 결과로 여겨진다.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주효과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서 공격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중생을 대상으로 한 임옥이(2003)의 연구에서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녀중학생의 경우 남녀공학이라는 학교 환경 보다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확립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 역할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중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과거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기 보단 시대적 변화에 맞춰 남녀공학이나 비공학 모두 양성형이 가장 많으며 남녀공학보다 여자중학교에서 남성형이 여성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의 공격성에 있어서는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공격성 정도와 유형은 차이가 없었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남성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여중생의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각 중학교에서는 남녀공학이나 여자중학교 혹은 남자중학교 등 학교 형태에 상관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공격성 정도를 확인하고 그 유형을 분석함과 동시에 유형별 공격성 완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효과적인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방향과 교육내용 및 방법 선정 등에 활용하여 고정된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개인차를 인정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여중생의 공격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5개 교육관할구 14개 중학교 2학년 중 남녀공학 여중생 265명과 비공학 여중생 261명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여중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형이 가장 많았으며 남녀공학보다 여자중학교에서 남성형이 여성형보다 많이 나타났다. 여중생의 공격성은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이 가장 높았으며 남녀공학 여부는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는 남성형의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중

생의 공격성 정도와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격성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에 의미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별, 학교 급별, 학교 유형별,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강현숙(2008). 잠재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의 양육 행동, 친구관계, 사회적 지지,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곽혜경(2008). 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완벽주의, 공격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미경(2000). 복원성 향상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김미남(2002).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여중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표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산.

김미향, 김인재, 조한범(2000). 체육수업 유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체육수업 성취도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9(3), 208-216.

김영희(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

박민정, 최보가(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배정희(1997). 학교형태에 따른 중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

손현숙(2009). 아동,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과 DAS 반응특성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산.

오산여울(2008).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기통제가 공격성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산.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영희(2007). 남녀공학 혼성반, 비혼성반 및 비공학 중학생의 사회성, 학습동기,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이진솔(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임옥이(2003). 남녀공학 여부와 성역할 정체감 여부에 따른 남자 중학생의 공격성 및 자기표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산.

장혜정(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성역할 정체감, 자기 통제 및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지, 12(2), 151-162.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R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6). 2006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최임숙(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ilffs, N. J.: Prentice-Hall.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Consult Clin Psychol, 42(2), 155-162.

Crick, N. R.(1996). The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6), 1630-1639.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 Bull, 84(4), 634-660.

Kempes, M., Matthys, W., van Engeland, H., & de Vries, H.(2005).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 A review of theory, findings and the relevance fo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ur Child Adolesc Psychiatry, 14(1), 11-19.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43.